

사회복지시설 탐방 ㉓ 소망원 흥성택 원장

세상의 빛이 되는 따뜻한 사람들의 공동체

사회복지법인 시각장애인시설 소망원(원장 흥성택)은 "화목한 가정, 유순한 언행, 감사하는 마음"을 모토로 일류복지시설 실현, 장애인의 정상화,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망원은 소외받고 있는 맹인들을 수용해 의료, 교육, 사회심리, 직업재활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열악한 삶의 현실에 좌절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섬기고 끌어안아 대상자들에게 삶의 만족감을 갖게 하고 나아가 복지사회 실현에 일조하기 위해 소망원을 설립했다.

소망원은 이전에 초대 원장이 설립, 1976년 실로암 맹인소망원으로 부터 시작되었고 1996년과 1997년에 현재의 시설인 사랑관(시각장애인 생활관), 소망관(원장 및 자원봉사자 생활관), 믿음관(예배당 및 시각장애인 생활관)을 개관했다. 또한 경기도내 유일한 시각장애인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난 2002년 사회복지법인체인 소망원을 설립, 현재에 이르고 있다.

소망원은 흥성택(58) 원장과 총무1명, 사회재활교사 1명, 생활재활교사 5명, 보행훈련사 1명, 간호사 1명, 취사원 2명, 세탁원 1명 등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

며, 운영관리팀, 사회재활팀, 생활재활팀, 의료팀으로 구분 짜임새 있는 운영을 하고 있다.

현재 소망원에 입소해 있는 시각장애인은 여자 20명, 남자 3명으로 연령은 20대부터 90대까지 고루 분포하고 있다. 현재 소망원은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프로그램실 및 자원봉사자실, 목욕탕 및 세탁실을 신축 중에 있다.

흥 원장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기존의 건물을 2층으로 증·개축하고 있다"며 "등걸기를 맞아 공사를 서둘러 완공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의 완공으로 현재 소망원 건물이 일반 주택 구조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이 원활치 않고, 자원봉사자들과의 프로그램 진행이 불편했던 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의 완공으로 현재 소망원 건물이 일반 주택 구조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이 원활치 않고, 자원봉사자들과의 프로그램 진행이 불편했던 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망원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실시하는 주요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은 크게 기초재활, 심리재활, 교육재활, 건강훈련, 지역사회 참여프로그램, 의료검진으로 구분되며 특히 심리재활, 교육재활, 건강훈련에 집중되어 있다.

심리재활은 예배, 음악공부, 국악, 사물놀이, 개인상담으로 진행되며 교육재활은 보행교육, 점자



사회복지법인 시각장애인시설 소망원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세상의 빛을 던져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 유일의 법인 시설이다. (원인=흥성택 원장)

교육, 사회적응훈련 등으로 건강훈련은 기체조, 요가, 걷기훈련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두 재활 담당 교사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주요프로그램과 연계, 연중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는 목욕, 매일 실시하는 생활간지, 인공미용실을 이용하는 미용, 매주 실시하는 요가, 매년 구경에 실시하는 살날 문화체험, 매주 실시하는 각종 공연관람, 흰지팡이를 이용한 보행지도, 관내 주요 관광지

광, 장애인 날 맞이 포천연합체 육대회 참석, 시각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참석, 하절기에 주로 실시하는 수영, 음악을 이용한 음악치료, 송편을 직접 만드는 한가위문화체험 등 다양하게 진행된다.

흥 원장은 "소망원에서 실시하는 여러 프로그램은 소망원 자체적으로도 실시하고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속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관심 문화체험, 매주 실시하는 각종 공연관람, 흰지팡이를 이용한 보행지도, 관내 주요 관광지

가 출현한 이래 사회복지의 모든 사업이 지지체로 이관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지방분권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재정지원의 불균형, 장애인 시설입소 제한, 지역간 복지시설 서비스 불균형 등을 예로 들며 장애인 관련 모든 사항이 다시 중앙정부로 환원되어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의 : 031-536-6292/6290  
후원 : 농협 225051-55-00037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소망원)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심터

즐거움의 과보

석혜승  
보통전자주지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 지든 못 노나니..." 하는 노래가 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왕 살거라면 재밌고 즐겁게 살자는 내용이다.

즐겁게 산다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화두이다. 즐겁게 살수만 있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성공적인 삶이라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즐거움 수단은 없으니 이것이 문제다.

생각해보면 즐거움도 중독성을 갖는 듯하다. 슬슬이나 마약같이 중독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번의 즐거움이라도 그것은 또 하고 싶다는 욕구를 가져오지 않던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도 조심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행위 뒤에는 선업과 악

업이라는 과보를 받게 되는데 이 즐거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선업이 되는 즐거움은 나에게 보람과 인락을 주고 재충전의 의미를 줌으로 그것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두가 좋은 즐거움이 된다. 하지만 악업이 되는 즐거움은 나만 좋은 이기적인 즐거움, 괴로움이 따르는 쾌락의 즐거움이 되므로 결국 모두에게 파멸을 주는 즐거움이 되는 것이다.

어떤 일이 즐겁다면 나만 좋은 즐거움인지, 끝도 좋은 즐거움인지 한번쯤 살펴 볼 일이다. 사람은 괴로움 때문에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 때문에 파멸하기 때문이다.

필자연락처 031-542-0032



은미 닷소 사랑이야기 ㉓

발전하는 영천 목장

가을 단풍이 붉고 아를 담게 물드는 쌀쌀한 계절이다.

처음에 목장을 할 때는 착유소 8마리와 육성우 4마리, 60여평의 목장과 100여평 운동장으로 시작했다. 경력이 없어 짓소가 병이 나면 수의사를 불러야 했고, 짓소가 발정기와 새끼를 가지려면 수정사를 불러야 했다.

목장을 3년 정도 경험하면서 연홍 아빠가 소가 병이 나면 약도 먹이고 주사도 맞게 하고, 수정 교육을 받아 자가 인공 수정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소가 새끼를 낳으면 우리 부부는 신기하고 기분이 좋았다.

짓소가 늘어나게 되어 운동장이 점점 좁아졌다. 우리 목장은 육성우를 많이 기르지만, 착유소와 육성우를 구분해서 길러야 하므로 육성우를 기를 만한 곳이 없어 고민하던 중 큰집 언니가 목장 아래 땅을 매매하겠다고 내놓았다.

이왕이면 연홍이네가 매입했으면



이은미  
주부명예기자단 총무  
가신면 금현리

팔을 매입하면서 우리 부부는 더욱 열심히 목장 일을 했다. 수입건조 가격 이 부담스러워 옥수수 사리야 했다.

목장과 쌀 추수후에 벗짚을 같이 먹고, 농노사와 함께 발농사도 지어 고추, 감자, 파, 무, 배추 등 신선한 유기농 야채도 배배하여 가계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목장을 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지만 보람도 크다. 땅도 정만하고 건물도 짓고 소도 늘어나고, 또한 우리 아이들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며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부모로서 아이들을 예의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며, 목장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잘했다고 자부심을 가지며 더욱 더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지켜봐 주세요!

“보훈가족은 노래로 건강 찾아요”

제1회 보훈문화 건강교실



포천시 보훈단체가 지난 26일 여성회관에서 개최한 제1회 보훈문화 건강교실에 참석한 보훈 가족들이 흥겨운 음악에 맞춰 노래교실에 참여하고 있다.

포천시 보훈단체는 지난 26일 여성회관에서 제1회 보훈문화 건강교실을 개최했다.

포천시 보훈단체가 주최하고 의정부보훈지청이 후원한 이번 건강교실은 보훈가족의 노력으로 인해 건강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노래와 율동을 통한 활기를 되찾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건강교실은 포천시 상이군경회(회장 염영화), 전동군경유족회(회장 안영민), 무공수훈자회(회장 서동원), 미망인회(회장 강현자) 회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교실, 퀴즈, 기념식 및 노래교실 등으로 진행했다.

의정부보훈지청의 권은옥 씨는 "보훈가족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포천지역에서는 처음 개최된 만큼, 보훈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박윤국 포천시장은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 예우 개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자체 추곡수매로 농민과 아픔 함께 나누

영북농협, 40kg 5만4천원에 2만가마 자체수매

정부의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라 영북농협(조합장 이상용)이 영북면 전체 쌀 생산 농가 수확량의 1/3규모인 150농가 비 2만가마를 40kg 1가마 5만4천원에 자체수매하여 농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

이것은 작년(2004년) 자체 수매량인 1만5천가마보다 5천가마를 더 확대수매하는 것으로 현재 80kg 쌀 1가마 도매가가 14만4천원인 점을 감안할 때 도매비용, 인건비, 물류비용 및 내부이자 등을 계산하면 80kg당 16만2천원에 수매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로 인한 영북농협의 적자액은 1억2천만원선에 이른다.

이 수매가격은 이전 다음으로 전국최고가에 이른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러한 출혈수매는 농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농협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전체수확량의 30%는 농협이 보장해주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것은 현재 영북농협의 경우 창고도 없고 도정시설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2005년도에 건조장만을 건립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커다란 결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농민은 "정부수매가 올해부터 불가능해짐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추곡수매까지 안한다고 하니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따름이다. 그래도 농협에서 일부 수매를 해주고 있어 고마운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미경 주부명예기자 hsd5333@hanmail.net

포천시 제2차 추경 75억3천 증액 편성

제20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추경 및 조례안 심의

포천시의회는 지난 24일부터 31일까지 제20회 임시회를 갖고 포천시가 제출한 2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와 조례안을 심의한다.

시의회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75억3천858만18천원으로 기존 예산대비 2.53%가 증가한 규모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변동이 없는 가운데 세외수입은 12억3천84만4천원을 비롯한 재정보전금 13억222만 원이며, 보조금 사업으로는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8억2천500만원, 간이상수도평가 상사업비 6억5천만원 등 61억3천766만2천원이다.

또 일반회계 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5억8천998만원 감소 ▶사회개발비 44억9천372만원 증액 ▶경제개발비 47억3천168만8천원 증액 ▶민방위비 41만4천원 증액 ▶지원 및 기타경비 3천638만2천원 증액했다.

또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1억3천211만8천원이 감소된 예산안으로 기능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천380만 원 증액 ▶관광지관리 특별회계 227만2천원 증액 ▶주택사업 특별회계 265만4천원 증액 ▶경영수익 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운용실적이 없어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입 조치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인터뷰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김기호 · 고문

더욱 다양한 기사 전달에 노력 '매사를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매사를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를 좌우명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초대 단장 김기호(54·소흘읍 초가팔리)고문을 만났다.

주부명예기자단 초대 단장역할에 대해 김 고문은 "전국에서 최초로 주부명예기자단을 조직한 사실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우며 막중한 역할 수행에 무한한 기쁨과 자긍심을 갖게 됐다"며 특히 불우 이웃돕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주부로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빛나는 재주를 발견하고 이를 세상에 알릴 수 있고 생활가운데 불편한 점을 드러내어 개선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14개 읍면동에 골고루 주부명예기자단이 확보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아 앞으로 각 읍면동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주부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좋겠다고 한다.

42세에 낳은 딸 수영이에게 쏟는 김 고문의 노력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다른 부모에 비해 20년이나 늦게 태어난 딸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 빨리, 많이 해주고 싶은 욕심에 유별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행히 딸이 엄마의 마음을 읽고 잘 따라주고 잘 성장하여 주기 때문에 감사한다. 최근 동부회계 설계사로 일하면서 아침에 출근할 수 있는 사무실과 책상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김 고문은 특유의 대인관계술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추산초등학교 어머니회장, 갈월중학교 운영위원, 소흘읍 초가팔리 새마을부녀회장, 소흘읍새마을 부녀회 감사, 포천의제21 운영위원으로 활동중인 김 고문은 앞으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주어진 일에 긍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포천신문에도 더욱 다양한 기사를 게재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강옥자 · 감사

기쁨·슬픔 함께 나누는 꽃과 생활 처음 시작하는 마음을 항상 갖자

'처음 시작하는 마음을 항상 갖자'를 좌우명으로 삼아 매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늘 밝은 미소와 친절로 서비스해 내시고 있다는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강옥자(52·소흘읍 송우리 주공2단지) 감사를 만났다.

송우리에서 늘봄 꽃 화원을 운영한지 벌써 14년째다. 남편의 친구가 꽃도매상을 해 꽃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단위농협과 여성회관, 신흥대학 사회교육원 최고지도자과정에서 꽃꽂이를 공부하여 소비자들에게 멋진 꽃을 제공하고 있다.

강 감사는 꽃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처음 꽃매장을 열고 손님을 맞았을 때 무척 떨렸다. 긴장하며 매일같이 꽃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때로는 직원들의 작은 실수로 단골 고객이 뒤를 아서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난감하다고 설명한다. 며칠전 강남에서 개최된 신상품 세미나에 다녀왔다. 선과 공간 위주의 동양꽃꽂이가 점차 사라지고 입체적인 모양을 강조하는 서양꽃꽂이가 위주로 꽃을 만들고 있다.

강 감사는 주부명예기자단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꽃꽂이 강의를 통해 누구나 꽃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

주부명예기자로 활동하면서 똑똑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서 반갑다며 신문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신문에 기사가 나오면 세간의 화제가 되는 것도 생활의 변화라고 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강 감사는 앞으로 꽃에 대한 이야기를 신문에 연재하여 보다 많은 이들과 행복을 나누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제21 궁금하세요?”

11월3일 의제바로알기 워크숍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의장 윤순옥·안중수)를 알리기 위한 '의제바로알기 워크숍'이 오는 11월 3일 오후 1시40분부터 4시까지 여성회관 3층 청성홀에서 개최된다.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워크숍은 의제21을 바로 알고 주민, 기업, 행정기관, 여성, 청소년 근로자, 농업인, 과학자, 시민단체의 주요 9개 그룹이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는 운동임을 바로 알리기 위해 마련된다.

이날 행사는 시민(주민자치위

원), 행정공무원(읍·면·동장), 기업인, 기관·단체장, 학교장 등 3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1부 기념식과 2부 의제바로알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의제바로알기는 유문준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사무처장의 사회와 김병안 광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포천의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의제21의 과제와 방향'이란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포천의제21은 유엔환경개발회의(UNEP)에서 권고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이념을 포천에서도 채택해 포천군 환경기본조례(제1697호)에 근거하여 2000년 12월 15일 창립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노인 쉼터 활용 기대

냉정2리 경로당 준공

포천시 관인면 냉정2리(이장 유중근)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냉정2리 경로당(노인회장 이상순)을 개최했다.

고령화 사회속에 노인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어진 냉정2리 경로당 준공식은 박윤국 포천시장, 김종홍 포천시회의회의원, 이문근 면장, 면단위기관장, 마을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됐다.

이날 준공식은 경과보고와 박윤국 포천시장과 용해전축에 대한 감사사제전달, 내빈 축사, 준공테이프절



지난 25일 오전 11시에 냉정2리 경로당 준공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테이프 절단을 하고 있다.

단 및 현판식 등으로 진행됐다.

관인면 냉정2리 524-3번지에 위치한 냉정2리 경로당은 총120평의 부지에 조적석 스타브 구조의 42평

으로 총9천6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에 완공됐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